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中等學校入試撤廢問題
차라리 學校를 增設하라

一

얼마前 大阪府에서 突然 中等學校 入學試驗科目을 國史 一科目에만 限定한다는것을 發表한것이 日本全國에 異常의 衝動을 주게되여 그後 各府縣에서 或은 入學試驗을 全然廢止하고 或은 此에 大改革斷行을 發表하게되엿다.

中等學校 入學難에 依하야 初等學校兒童敎育이 入試準備에 偏重하게되여 國民保健上 兒童健康에 多大한 惡影響을 주게되여 學父兄側으로 非難이 만흘뿐아니라 二世國民의 保健問題로 昨今一大社會問題로 되여잇슴은 世人이 周知하는바이어니와 이러한 때에잇서서 大阪府에서 率先하야 中等校 入試科目을 制限하게된것은 得宜한 處事인 同時에 其他府縣에서 卽時 此에 呼應하게되는것은 必然的 趨勢로 볼수잇다。그리하야 이事實이 初等、中等、高等校를 莫論하고 入學難이 世界어느나라 어느社會보다도 더甚한 우리朝鮮에 더 만흔 衝動을 주게됨은 勿論이어니와 따라서 總督府學務當局에서도 入學試驗制度의 改革을 말하게되엿다。

二

學務當局의 말에依하면 朝鮮에서는 中等校 入學試驗制度를 撤廢할수는업고 亦是 從來대로 國語 算術에 限定하야 入試準備敎育의 弊、試驗題目의 偏重、學父兄의 自覺에 依한 實業學校選擇等의 길을 取하게 할터이라한다。그理由로 (一)筆記試驗을 廢止하드래도 口述試驗에 여러가지 常識問題를 問答식히면、結局 筆記試驗이나 同一한것 (二)情實關係의 弊를 除하고、公平히하려면 亦是 試驗制度가 나흔것 (三)學校는 적고 志願者는 만흐므로 試驗을 廢止하면 銓衡의 標準이 甚히어려워 自然 情實關係에 흐르게되는것等을 指摘하고잇다。

以上 當局의 入試制度의 廢止不可能에 關한 理由는 相當한 根據가잇는것으로 入試撤廢는 그理想만은 조흐나 現下의 朝鮮敎育界 現狀으로는 到底히 廢止할수는 업는것이다。그러나 問題는 初等校兒童의 入試準備의 弊害가 甚히만흔 事實을 認定하는 同時에 中等校入學試驗撤廢가 理想的이라는것을 全社會가 公認하면서도 오히려 그入試制度撤廢를 反對하지안흐면안되게된 그곳에 苦衷이잇스며 問題가 생기는것이다。

三

吾人은 昨日 本欄을通하야 中等敎育機關의 不足과 當局의 中等校設置에 對한 消極的政策을 非難하는 同時에 實業敎育偏重의 非를 論하엿거니와 昨今 文部省當局에서 義務敎育期間延長斷行에 邁進하고잇고 各府縣에서 中等校入試撤廢를 着着 實行하고잇는 이때에 總督府學務當局은 學校不足의 事實을 公然히 自認하면서 그것을 唯一의 理由로 中等校 入試撤廢의 不可를 云謂한다는것은 問題自體를 理解치못한것이 아니라면 民衆의 智能을 蔑視한것이 아닌가 생각된다。學校가만흔 日本內地에서도 入試에依한 兒童保健의 弊害를 認定하는데 入學難에잇서서 學務當局이 學校不足을 公言하면서 그弊害를 認定치안코 이를 認定하면서 學校增設計劃은 不可能하다는 現狀을 主張한다는것은 自我矛盾이 아닐수업다。그러면 學校를 增設하는 外에는 아모것도 아니다。그러므로 入試撤廢는 그러므로 學校를 增設하는것은 그自體가 矛盾이 잇는 것이며 그 入試制度가 平凡化하는 때에도 그 原因이 잇는 것이다。그러나 入學志望者의 數가 學校보다 만흔 限에 있어서는 學校 增設이 아니면 解決될것이 아니므로 學校를 增設하는 것이 根本的 解決策이라는것을 明白히 알어야할것이다。

伊獨의叛軍援助로 列强對立抗爭激化
不干涉協約締結方針放棄코 佛國도遂重大決意?

불룸佛首相

【巴里三十一日發同盟】伊太利軍用飛行機의 不時着陸事件에 關하야 嚴重調査한結果 西班牙叛亂軍을 援助하고잇는것은 거의움즉일수업는 事實이라고 보이게되엇다 佛國政府當局은 以上의事態를 重大視하고 緊急對策을 檢討中이라고 解釋된다 當初佛國政府는 英伊兩國에對하야 西班牙內政不干涉 協約締結을 提示할 方針이엇던바 三十一日夜에 至하야 突然右方針을 放棄하엿다고한다 그런데佛國政府는 뭇솔리니首相이 히틀러 獨總統과 握手하야 프랑코將軍을 盟主로한西班牙叛亂軍과 聯携하야 歐洲에 팟쇼帝國을 結成하야 東西로부터 挾擊하고 또 南地中海上의 制海權과 佛國本國 北阿弗利加大陸의 植民地와의 連絡을斷絕할것이아닌가 念慮하고잇다 獨、伊兩國政府는 三十一日 突然 로카르노條約會議에 對한招請을 受諾하엿는데 右受諾에依하야 英國政府의 好意를 사서英國政府의 注意를 地中海로부터 떠나게하야 로카르노會議에 集中케할것이아닌가 觀測되어 西班牙內亂을 圍繞코 歐洲各國政府의 對立抗爭은 漸次表面化하게되엇다

伊機十四臺、又復 西領모록코에不時着

【라밧트卅一日發同盟】伊太利軍用機 六機가 卅日 로마아地方 上空에 나타낫는대 그中 三臺가 故障으로 不時着하야 佛蘭 其他關係國의神經을 刺戟하고잇는此際 卅一日午後 또 同型伊太利軍飛行機十四機가 西班牙領모록코 메리라南方 나드르에 不時着하엿다 伊太利軍의 意圖는 알수업는것으로 終始疑惑을 이르키고잇다

로카르노會議에 獨伊欣然參加

【伯林三十一日發同盟】獨逸外相 노이라-트男은 三十一日午後外務省에 英佛白各大使를招致、獨逸政府는 로카르노會議에 欣然參加할旨를 通達하엿다
【羅馬三十一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로카르노會議參加에 對하야 英佛白三國政府의 招請狀을 受諾、그諾否에關하야 研究中이든바 그後形勢好轉에 依하야 欣然參加키로決定 치아노外相은 三十一日午後外務省에 英佛白各國大使를招致하고 그旨를 通告하엿다

伊東阿遠征軍 續續羅馬歸還

戰爭은 뭇낫다! 勝利의 凱歌를 부르며 羅馬로 歸還하는 兵士들과 파시스트의 首腦들은 驛前에서 一一히맛는다 寫眞은 羅馬驛에到着한 大學生 義勇兵隊를 歡呼하고잇는 뭇소리니首相과 및政府要人

陳策氏에全權委任 廣東海軍을改編
陸軍의整備改編은漸進的으로 西南中央化工作全貌

【上海一日發同盟】陳濟棠의下野 李宗仁 白崇禧의 服從으로 兩廣問題는 蔣氏의 決定的勝利로 끗마치엇다 蔣氏는 이機會에 多年의 懸案이던 兩廣中央化를 一擧에 實現하려고 거피 決意하고잇는모양으로 이미 陸海空軍의 軍事關係事項의 整理改革을圖하야 各其專門家及 關係要人을 派遣하야 着着工作을 行하고잇슬뿐아니라 財政金融의 統制를爲해서는 이미 宋子良 鄒琳其他有力者를 派遣收拾中이다 卽 余漢謀는 廣州에들어간以來 每日中央側要人及 廣東省要人들과 折衝하고잇스며 海軍次長 陳季良氏는 軍艦海籌로 二十四日 廣州에들어가 余漢謀 張之英等과 會見하고 廣東海軍의 中央依編에 關하야 協議中인데 이는 現主席 林雲陔氏가 引退할것을 明白히하고잇슴으로 他에 中央直系로 廣東出身의 要人을 後任에 任命하게될모양이다 다만그中에도 廣東陸軍의 問題는 第一까다로운 問題로 一擧에 解決하려고하면 도로혀後難의 不安을 增大하야 中央化工作의 圓滑한 進捗에 意外의 支障을 招來할는지도 모르므로 蔣氏는 余漢謀氏와 充分協議한結果 (一)各軍編制는 當分不變更 (二)各軍軍費는 當分從前대로할것 (三)燕塘軍官學校는 改組하기로 決定하엿다 要컨대 蔣氏는 廣東一省을 完全히 中央化하면 廣西와 가튼것은 自然解決되리라는 豫測下에 廣西는 別로 念慮치안코專혀 廣東中央化에 邁進할 形勢라고解釋된다

蔣介石氏、飛行機로 廣東에直接出馬
舊軍官學校舍에行營을準備 軍艦二隻이急航警戒

【廣東一日發同盟】當地 軍界消息에 依하면 蔣介石氏는 八月三日 張發奎氏以下 多數의 幕僚를 帶同하고 廬山에서 飛行機로 來粤할 豫定이라는바 目下滯粵中의 陳誠氏는 三十一日 스스로 黃埔에 赴하야 舊軍官學校校舍에 行營을 設置하는 同時에 中央軍의 一部를 同地에 派遣하고도 香港碇泊中의 陳季良麾下의 軍艦二隻에 黃埔急航을 命하야 警戒에 當하도록 하엿다 (寫眞은 蔣介石氏)

對日方針은不變
國府、許大使에傳達을訓電

【上海一日發同盟】國民政府는 駐日大使許世英氏에 對하야 有田外相에게 今後의 對日方針은 西南問題解決後도 不變할旨를 正式으로傳하게되엿는데 右는 西南問題의 解決이 豫期以上으로 成功한結果 國民政府部內의 今後의 對日方針에 關하야는 西南問題解決의 餘勢를 모라 從來의因循姑息的態度를버려 極히 强硬策에轉向하리라는 强硬論이流行되여 廬山會議에서도 이點이論議되엿슴으로 此際急激한 對日强硬論은 突然히 日本을刺激하겟슴으로 今回의 訓令을發하게된것이다

外務省辭令

【東京電話同盟】外務省通商局에서는 機構改革에 伴하야 總務課를 新設하야 一日부터 實施하고 同日 如左히 發令하엿다
外務書記官(條約第一課長) 小林亀久雄
通商局總務課長
外務書記官(條約第二課長) 松本俊一
命條約局第一課長兼務

陳氏監禁狀態
所持金三億元으로

【香港發】國民政府는 廣東平定後 宋子良 唐海安氏等에 陳濟棠氏一派의 公金拐帶의 罪跡調査를 命하엿든바 그調査의結果 關稅、統稅(鹽稅、阿片、煙草等의 地方稅統一稅)等 千數百萬圓의 缺損을 發見、國民政府財政部는 目下 香港政廳에 陳氏의 外遊禁止、私財引渡等 자조 電報로 交涉하여오므로 香港政廳當局은 香港마도날드街十三號의 住宅에잇는 陳氏는 完全히 監禁狀態에 잇다

一般觀測으로는 陳兄弟(陳濟棠陳維周)만이 過去七年間에 인켜가 하여먹은 私財는 二億元에 達하며 廣東亡命前 金塊 三千萬元、銀塊二千萬元을 軍艦二隻으로 印度支那로 보내엿던바 印度支那當局은 國民政府의 輸出許可證이 업는限 引渡할수업다고 傳한다 또 最近 印度支那에 軍艦으로輸送中의 銀貨二百萬元이 國民政府의 軍艦에依하야 海南島沖에서 沒收된 事實도잇고 이外에 陳濟棠氏의 金大臣宋子良氏가 廣東을 亡命하여나갈때에 家財라고 稱하고 金銀塊數十箱을 香港에 運搬한私財도 七千萬元以上에 達하야 陳氏一派 沒落은 廣東商人의 膏血을 搾取한 巨額의 公金은一時에 이러버리게되엇다는 大問題로 國民政府는 熱意 此를 押收하려하는데 極히注目된다 陳濟棠氏如何가 廣東亡命以前 부터그의故鄉防城縣(廣東省)에 接近한 印度支那에 數十萬元을投하야 佛國式의 宏大한 別莊을짓고 그리로 亡命하려하엿스나 廣東으로부터 英國軍艦에 護送되엿슴으로 이러케된것이다 六億元을 圍繞하고 國民政府와 陳氏一派와 香港政廳과의 三角關係는 廣東政局終結의 問題로서興味잇는問題이다

世界一을目標로 空軍二萬機整備
一個月製作能力은二千五百臺! 新興獨逸의空軍現勢

一九〇九年에 佛國렝스에서 飛行家大會가 잇섯슬때 포슈元帥는 말하엿다
飛行機란것은 스포츠에 不過하다 飛行機가 戰爭에 所用되리라고 생각되지안는다
一九一五年에 英國에 킷치너元帥는 탱크를 보고
이는 자미잇는 작란감으론 아주좃다。그러나 戰爭에 이런것을 쓸수는업다
고 말하엿다고한다 다함께歐洲大戰의 英佛聯合軍의 總帥로 史上에 남은 大將軍이나 此等大將까지도 將來의戰爭에 탱크와 飛行機가 얼마나 重大한 役割을 할는지에 對해서는 認識이 錯誤되엇섯다 軍事의 進步發達의 可驚할 速度에 關해서는 어느누구도 明日을 豫測할수업다

×

卅噸의 탱크를 飛行機의 翼下에 실고 이를 敵의 參謀本部內에 落下케하야 敵의參謀總長以下 優秀한 幕僚를 모조리 죽이고 다시 飛行機에 탱크를 실고 다라오다는『飛行탱크』를 目下 獨逸에서는 熱心히 考案中이라고한다 今日에잇서서 이것을 드르면 우스운 어리석은 空想인지도 모르는다 그러나 明日의戰爭에 이것이 實現되지안는다고 누가 斷言하겟는가?

×

獨逸의 空軍에 對한 熱意는 아마 列强에 그比를 보지못할것이다 따만 飛行탱크의 計畫뿐아니라 그 全空軍計畫은 實로 무서운것이잇다 一九三五年三月十六日 獨逸이 베르사이유의 軍事條項을 宣言하고、强制徵兵制를 施行하는同時에 第一먼저 着手한것은 空軍整備이다 베르사이유條約의 破棄까지에 秘密히 軍用機를 製作하야 當時에 이미 그數 四千臺에 達하엿다고 체코의 베네슈外相은 述하엿다 英紙데일리·메일은 獨逸의 現在軍用機는 二千四百臺이오 一個月의 製作能力은 二千五百臺이라고 傳하고 英國新聞王 로자미아卿은 一萬臺의 飛行機를 整備하엿다고말하야 英國民을놀라게하고잇다

×

또 어떤 外國評論家는 獨逸은 空軍二萬機計畫에 關하야 着着 實現을 急行中이라고 述하엿다 이와가티 獨逸이 膨大한 空軍計畫을 가젓다고 보이는것은 一로 大戰當時 폰·리히트호-펜飛行大隊指揮官으로 活躍한 꾀링空相의 偉大한 存在가 잇기때문이다 그는 나치스政權을 掌握한 三巨頭의 一人으로 나치스幹部의 椅子에 안즌 二十餘名의飛行家軍人과함께 陸軍空軍强化를 力說하고 그充實에 邁進할것을 主張하야 이實現에 異常한 努力을 傾注中이다 나치스空中突擊隊本部가 中心이되어 全國에 支部網을 치고 褐衣隊黑衣隊는 續續 空兵에 變更되고잇스며 他方 데사우에잇는융카스를 爲始하야 돌니여 고-다 하인켈아라드等의 飛行機製造會社는 政府의 莫大한 補助를 어더、生產設備의 改善을 圖하는同時에生產能力의 增大에 努力中이다

×

그中에도 飛行機會社로 最大의 稱이잇는 융커-스와 가튼것은 그링空相支配下에 그意思에依하야 어떠케던지 製作能力을 變更할수잇다 그럼므로 此等航空機製造會社가 全能力을다내는때에는 一個月二千機는 容易하다고 하야 空軍二萬機說이 生하게되엇다 또一千哩의 航續力을 가지고 時速二百五十哩 一千폰드의 爆彈을 投下할수잇는 重爆擊機와 가튼것은 獨逸空軍의 가장 特徵잇고 威力잇는 飛行機로써 構造가 簡易함으로 製作費도 겨우 六七千圓이라고하며 戰時에는 포-드가티 容易히 製作할수잇다고한다 그나마 民間商業用飛行機와 가튼것도 空相의 命令一下 六七時間으로 軍用機로 變更할수잇스므로 獨逸空軍의 存在는 軍用機만으로써 算定할수업다

×

또 獨逸空軍은 新瓦斯等에도 嶄新한 施設을가지고 한편보루크元帥G三八號와 가튼것은 機內에 護瓦斯製造所를 가지고 레스트랑까지 잇다고하며 唯獨軍用機의 數뿐아니라 質과 함께 蘇聯、佛、英、伊로하여금 恐怖케하고잇다 獨逸은 空軍이 二萬에 達한때 歐洲諸列强을相對로 戰爭을 開始할것이라고稱하는데 이는 單純한 데마라기보담 世界空軍을 目標로 進行中인것은 事實이다……

日淸製粉 朝鮮工場獨立

【東京電話同盟】日淸製粉에서는 日本製粉에 對抗하야 朝鮮進出에 關하야 압서 永登浦 鎭南浦에 工場基地를 買收하엿는데 今回 右工場을 獨立케하야 別會社로 創立하기로 되엇스므로 一日本社에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創立要項과 役員을決定하엿다
一、名稱 朝鮮製粉株式會社
一、資本金二百萬圓(四分之一拂込)
一、本社 京城
出張所 日淸製粉本社內
一、役員 代表取締役 恩賀太一郎

海軍大演習
第四艦隊를假想艦으로 一日부터前哨戰을開始

【東京電話同盟】=海軍省發表= 八月今年度 海軍特別大演習은 一日부터 前哨戰의 幕을여럿는데 高橋聯合艦隊司令長官麾下의 聯合艦隊가 假裝敵國艦隊로서對抗演習을 實施할 第四艦隊는 一日附로써 編成되야 司令長官에 補任된 舞鶴要港部 司令官鹽澤幸一中將은 參謀長 井澤春馬少將以下 幕僚를 다리고 橫須賀軍港在泊中의 旗艦 山城에坐乘하야 곳 行動을 開始하얏다 海軍省은 同日午後一時 右에關하야 副官談의 形式으로 左와如히 發表하얏다

海軍省副官談

本年度特別大演習은 本日開始되야 그參加部隊中 臨時編成된 第四艦隊司令長官에는 鹽澤中將이 任命되야 同中將은 本日 旗艦山城에 乘艦하게되엿다 그리고 鹽澤中將不在中 舞鶴要港部 司令官의 職務는 南里少將이 代理하기로되얏다

小原課長左遷 大藏省異動發表

【東京電話同盟】過般取引所制度改革案問題에 關聯하야警視廳에參考人으로 召喚取調中인 大藏省 小原國債課長은 責任上左와如히 左遷되야 此에伴한 人事異動이 一日發表되앗다

大藏書記官
理財局國債課長 小原正樹
任專賣局參事(二等)
專賣局製造部管理課長을命함
預金部運用課長 山路鎭夫
任大藏書記官(二等)
理財局國債課長을命함
營繕管財局
總務課長 山田鐵之助
預金部運用課長을命함
專賣局參事
專賣局管理課長 森本靖男
營繕管財局總務課總務課長을命함

人事·集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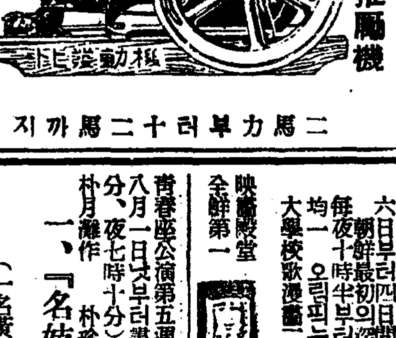
◆今井田總監 國境視察後 歸途에잇던 今井田政務總監은 豫定을 變更하야 田中警務局長과 同道로 約六日間 平北國境線一帶의 最近警備狀況에關하야 視察할터
◆徐椿氏(本社主筆) 經濟講演次 畿湖地方에出張中이던바 昨八月一日歸任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產銀行
資本金參千萬圓
頭取 有賀光豊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告示
一、墳墓의位置及基數
大同郡西川面仁興里一의一番地 墳墓基數 十三基
右墳墓는無緣墳墓로서 該墳墓의所有者又는管理者는昭和十二年一月廿四日까지 當署에屆出하라 右期間內에屆出이無할時는 無緣墳墓로看做하고 出願人에게改葬을許可함
昭和十一年七月三十日
大同警察署長

江陵劉氏天放公派譜를刊行하오니 會位는陰七月以內로 無漏送單하시되 萬一譜事에未詳하시거든 書示또는來問하심을伏望하나이다
丙子陰六月九日
全南長興郡長東面霞山里(致敬齊)
江陵劉氏天放派譜所白

ヒト輕油發動機
燃料節約·取扱簡單
出馬力强大·堅牢無比
シリンダー交換式
農林省御推薦機
二周年까지 二十周年記念
鮮滿配給元 土肥發動機釜山出張所
釜山府大倉町一丁目 電話長一二六九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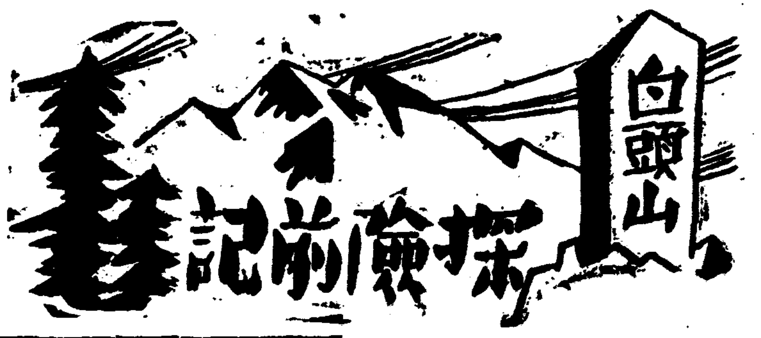


不老長壽 强精固春 更少幸藥
百補丸
京城堅志町 平和堂 一劑十圓

農村救濟에 貢獻하야奉仕的廉價
今年에稻扱機는!
實用的이며最新式인 岡部式
稻扱機를愛用하라
今秋의準備는只今하시오
組立 二人用 一人用
(但注文者에限하야半額以上先送金)
大阪市西成區出城通五丁目九
岡部合名會社

青春座公演第五週 八月一日낫부터晝夜 朴月灘作 朴珍脚色 一、『名妓黃眞伊』 四幕五場
松都의三絕을일컷되 朴淵의名瀑과 花潭의道學과 黃眞의美色이라한다
悲劇『愛慾』二幕 李雲芳作
東洋劇場 西大門町 電光3三番

映畫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八月一日封切(五日間)
日活超特作映畫 追分三五郎
二十世紀폭스超特作映畫 百萬番의感激
空中에울니는音樂 (Music in the Air)



地變頻頻關係로 二百年樹齡이平均
年中强風에昆虫翅翅은退化
動植物界로본白頭山 (下)

백두산은 이와가티최후의 분출이 학자들의 추측으로 불과 삼백년밧게 되지아니함과 동시에 래고이래로 빈번한활동이 끈허지지 아니하엿슴으로 뭇지렬 번식하든 식물(植物)은 이와가티 한번식 화산이 분출할때마다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적으로 전멸을 당하게되고보니 어느산에 비하야도 그넓비의어마어마한품으로 한목을 보는백두산 거야(据野)에 버려저잇는 식물은 그분포가 자못 착란한바잇서서 보통고산지대의 일렬로 분포의순서가 되지못한 특이성이 잇스니 그일례를 들것가트면 일반고산에잇서서 관목대(灌木帶)이상은 반다시식양은 이 서는것이 보통이나 백두산에는 이것을 볼수업는 상태로 이것도 역시빈번히 이러나는화산의분출로 부석(浮石)과용암(溶岩)에면치여정종이되모양으로 백두산의바로 동편에잇는 화강암(花崗岩)질의남포태산(南胞胎山)등지에는 『땅솔』종자가퍼저 잇스면서 백두산만이업는것은 이땅솔은 종자에부류나래가업고 분포력이 매우약함으로 퍼지지못한것으로알수잇다

따라서 사방사오백리의 넓비를차지한백두산거야(据野)에하늘이안보이도록더퍼잇는 대밀림(密林)은 얼핏생각하면 수만년수천년 독기를녀허보지못한산림이니수령(樹齡)도 수천백년쯤은나무가 버러잇슬것가트나 실상은압서 말한리유로 화산이활동할때마다 수림은전멸을 당하는관계로 현재에잇는 밀림은대부분 수령이백년내(內)으로 삼백년넘는나무는좀처럼 볼수업다고한다

백두산의 식물로서는 산허리의 대부분을 차지한 곰솔(黑林)은 이깔나무와 백화(白樺)가 그대부분을 차지하엿고 일매에 이색지고도 훈하게퍼지식물로서는 석남(石楠) 글루매(金露梅) 시차화(矢車花) 석죽(石竹) 류란(柳蘭) 야당(野棠) 매발화(梅鉢花)『들쭉』동으로 이중에도 『들쭉』은 역시 이종류의 한가지인 장과식물(漿果植物)『매장』과 함께 이지대특유한 소산이되여 그맛은 보통산외『머루』와 비슷하며 감산미(甘酸味)가 어울려 독이한향취를내는 자연생과실로 요지음에는 이것을따모하『실꽤』를대신한 과즙(果汁)을만드려 정향으로제로 시장에까지 내보내게되는식물이다。

이산의 고산식물은 특히칠채색표고를 가지고잇는 신무성(神武城)무두봉(無頭峰)사이에 분포되여잇슴이만코 무두봉 이상으로는레선대(蘚苔帶)를 이르어잇서관목(灌木)교목(喬木)과함께 그자최를 감추고마는것이다。

백두사식물경편의 이야기를버리면서빼두고 가지못할것은 밀림지대에 처처에버려저잇는 송령(松嶺) 등이니 하늘을찌를듯한의갈나무사이에 얽키고얽키여 혹은천연외『아―치』가되고 혹은넝쿨로만든 주렴가리되고 혹은『크리쓰마쓰추리』장식처럼되여장관기관을 보어고잇스니 이것이해로를가로막아 보행을곤난케하는곳도 한두곳이아니다。

이밖게 『들쭉』에 이르러서는 이산은『백년초원에도』산죽생이만히잇스나 감히사람을 상하지못한다『는표구가 나타난것으로보아 중생이마희는한것은사실이다 대체로맹수로는 곰、승냥이며 노루와사슴은 이산의특산이동이요 범과표범등은 흥지안흘다 달밝은밤 천지(天池)가에 사슴이떼를지어 물을찾고잇는것은람할가들로서 좋올것나는이로 선계(仙界)의경관을 그대로잇연해논듯하다고할것이다。

조류(鳥類)에 이르러서는 농사동(農事洞)에서 약사、오십리를지내면 새그림자를 별로 찾을수업고 다만이산의 특산인 독수리、매가를 떼꾀룩등이제마음껏 기를는 천지라고한다。

끈충에잇서서는 이곳은 바람이심한곳임으로 여간한 끈충들은바람을타고라도 날뉘하는수잇서 일반끈충들의 날개는 아주발달이못되고 퇴화만 생겨잇는것도 이산끈충의 한가지 특징이요 진기한끈충 조류도 허다한중에 세백접(細白蝶)가튼나뷔는 이산만이가진나뷔종류의하나이다。

려서 지리 박물계를통하야 백두산은 복잡하고도 다면적(多面的)이라 누구나 이산에발길을디려 노흥을 원하는터로 금번계획은 일석이조(一石二鳥)는심상한소리요 실로그수확은 괄목할바잇슬것이다 (사진은대밀림)

長有面茂溪里에서도 五十餘民家浸水
濁流는下東面에도波及

【金海支局特電】 어번수해로인하야 김해읍마마리(金海邑馬麻里)의 주민십사명 삼계리(三溪里)사람한명 북내동(北內洞)사람한명 합계열여섯명이 죽고그밧게 행방불명이된 사람이 아홉명이다 마마리의 피해민 일백오십여명은 방금 김해합성공립보통학교(合成普通學校)에 수용중이다 동군장유면무계리(長有面茂溪里)는 부근하천의제방사십여간이 터저서이때문에 침수가옥이 오십호 류실가옥이 다섯호에 달하는상태인데 그리재민 오백여명은방금 장유보통학교(長有普通學校)에수용하여잇다 또하동면(下東面)에도 류실가옥이 여섯호에 달하여잇다 긴급히 구호해야될형편이다

모여드는 수천관중이며서 효승(孝勝)조선계고회사(朝鮮計高會社)의 예선전부터 시작하야 조선계고(朝鮮計高)와 [illegible]건아단([illegible])과 [illegible]에서 [illegible] 사대일로 건아팀이단연승리하고 이어서문제의 남대문자동차학교(南大門自動車學校)와 삿보로맥주회사와의 예선전이 [illegible] 사대영으로 삿보로맥주회사가첨패를 당하고 오후륙시반결승의 순서를 마치엿다 제이일[illegible] 가 더욱흥미잇슬것이라고 [illegible] 되다고한다

赤痢依然猖獗
內服藥을勸奬

경성부민은 붉은설사병인적리에적 [illegible]예방내복약(內服藥)은 경무사 한번밧게 땔리지안헛다한다이로말미아마 적리병환자가 매만히 발생하게되는것이 아닌가한다 더욱이 체신국(遞信局)과철도국(鐵道局)원중에서 적리에걸린사람이 만타한다 그래서 일일 경성부위생과에서는 각방면으로 예방약을 먹도록 주의를시켯다한다

洛東江流域水禍慘報
長有公普校構內에 二百避難民收容
金海大晴川의 防築決潰로

十九名死亡、卅名負傷

【釜山에서特派員鄭水議一日午後五時發特電】 일일 오후세시까지 경남경찰부보안과에 도착된 경남도내의 수해상황은다음과갓다

▲釜山＝부산부 대신정(大新町)오사번지사는정복입이라는늙은녀자와 주소성명을알수업는사람과의두명은 보수천(寶水川)에서빠저죽엇고 부산부내 범일정(凡一町)내 시울에서도 주소성명을알수업는 사람 한명이빠저죽엇다

▲金海＝김해군 김해읍 마마리(馬麻里)의 수재상황은 류실가옥십구호(이십칠동)와 반괴(半壞)일호이다 빠저죽은사람은 도합열네명 (남자다섯명과 녀자아홉명)이며 행방불명 여섯명 (남자세명과녀자세명)이고 부상자 열네명이다 피란민 일백오십명은 막(幕)을 지여서 림시로 수용하고잇다

김해군 장유면(長有面)대청천(大晴川)의 방축이 터저서오호가 류실되엿스며 마루우에까지 물에잠긴집이 사십호이다 부상자는 열여섯명이며죽은사람은 업섯다 피란민 이백명은 장유 공립보통학교에수용하야 구제중이다 경남경찰부 보안과에서는 북강(北岡)보안주임이 위생과 판구(阪口)의무관을 데리고 김해수해지현장으로 일일오후에 출동하엿다 일일오후세시까지 판명된각지의 사망자와 가옥류실 침수 도로결손된 상황은 다음과가튼데 사망자 총계십구명이며 부상자 삼십명이고 행방불명자 아홉명이다

그러고 가옥류실은 구구호이며 가옥도괴는 십오호이다 침수가옥은 총계륙백일호이다 도로의 결괴는 팔개부군(府郡)에서 이십일개소이다

洛東江沿岸의 被害總額(一日現在)

▲死亡者＝▲金海一四名 ▲釜山三名 ▲梁山一名 ▲統營一名
▲負傷者＝▲梁山四名 ▲金海二四名 ▲統營二名
▲行方不明者＝▲金海六名 ▲梁山三名
▲家屋流失＝▲金海二五戶 ▲梁山三戶
▲家屋倒壞＝▲金海一五戶
▲家屋浸水＝▲釜山四六五戶 ▲梁山一〇戶 ▲蔚山八六戶 ▲金海四〇戶
▲道路決潰＝▲釜山一 ▲馬山二 ▲晉州三 ▲咸安二 ▲梁山三 ▲蔚山三 ▲東萊一 ▲金海六

三浪津一帶에도 洪水危機에直面
洛東江의增水五米突七十

【密陽支局特電】 밀양군은 금년 여름들어 접어들면서부터 비가자조와서 벼와밭곡식은 계속적으로 호리는점과 습기로말미암아발육이 충분치못한 데다가 해충(害虫)까지 발생하야 열반농가에서는 걱정에싸혀잇든중 지난칠월삼십일일 정오부터 비가내리기시작하야 밤에들어서는 폭주(暴注)로변하엿고 팔월초하로날오전열시 당지우량은 일백칠십이미리에 달하야 여러곳하천과 락동강은 전부증수되기시작하야 오후여섯시에이르러서는 홍수의 위긔에 직면하엿스며 삼랑진(三浪津)에서의 락동강수위는 일일오후여섯시현재에 오메-타칠십이를보이며 계속하야 시시각각으로 증수하고잇서 연안각지의 농작물은 침수가상당히만허 피해액이 적지안홀모양이다 더욱초동면(初同面)무안면(武安面)상남면(上南面)등지수리조합구역외와 삼랑진면(三浪津面)의일부의 농작물 피해는심대할모양으로 연안지방민들은 매년가티당하는 홍수난에 전전긍긍하고잇는중이며 각수방단은총출동으로 경계중이다 그리고이곳과 각자사이의 자동차교통은 거의두절되여잇스며 천괴는아직도비가게속하야 을줄하다

그리고 고성(咸安·固城)사이의 자동차도 불통되엿다

進永에도暴雨

【進永支局特電】 삼십일일밤부터 쏘다지는 폭우때문에 도로와교량의 파손과 전답의 침수로말미암은 피해가 상당히만흐며경전남부선(慶全南部線)진영(進永)

咸安水組區域內의 二百餘町步浸水
千餘名의小作人은戰戰兢兢
其他四面도八百餘町步被害

【咸安支局特電】 삼십일일오후세시부터 내리기시작한비는 일일오전일곱시까지에 일백오십미리의 우량으로 함안수리조합 몽리면적 일천사백정보가운데 이백여정보는 침수되엿다 천여명의그지대 소작인(小作人)은 큰공포에싸혀잇스며 조합에서는그방수에 열중하고잇다 가야(伽倻) 칠원(漆原)사이의 경편자동차는 불통되고 조일교(朝日橋)는수심이 사십척에 달하엿스며 칠서면(漆西面)칠북면(漆北面)대산면(代山面) 법수면(法守面)의 대는 팔백여정보의 농작지가침수되엿다 비는계속하야 오는중이다

大邱東川築堤決潰
東海中部線不通
琴湖江의水位五米突

동해중부선 대구거점 오키로되는 지점인 동촌철교(東村鐵橋)가걸려잇는동천축제(東川築堤) 륙미돌은 일일 오후두시이십분에 내물이 불어서 떠나려가버렷다 그래서 긔차도 통하지못하게 되엿스므로 철도측에서는 동촌역에서 승객을 하차시켜서 자동차로서 대구동촌사이의 련락을 하고잇다 금호강(琴湖江)의수위(水位)는 오후다섯시에오미돌에 달하엿는데 계속하야물이붓는중이다 동해남부선 부산진(釜山鎭)울산(蔚山)사이 월내(月內)남창(南倉)사이도 긔차가불통중인데 이일오전 여덟시쯤에는 개통되게 될듯하다

今朝에는復舊

【釜山支局電話】 각지의 철도교통은 대부분 복구되고 ▲東海中部線＝동해중부선(東海中部線)만은 이일오전여덟시까지 복구할 예정으로 작구공사중이다 ▲東海南部線＝동해 남부

馬山地方豪雨로
楡林亭進永間鐵路不通
自動車線路도杜絶

【馬山支局電話】 지난삼십일일밤 마산(馬山) 지방에도 백아홉미리의 큰비가 나리여 진영·유림정(進永·楡林亭)사이의 과차는불통되엿다 그리고마산·창원군북면(昌原郡北面)사이와 함안유림정(楡林亭)사이의 철도선로도 파손되야 렬차도 불통되엿슬뿐아니라 일반교통이 전연두절되엿다날새는아직도개이지안코비는오는중이다

乍晴後다시降雨!
洛東江刻刻增水
龜浦에三米突五十의水位

【釜山支局電話】 잠간 개엿든비는 일일 오후 한시부터다시게속하야 나리고잇다 락동강(洛東江)은각각으로 물이 붓고잇는데 일일 오후 세시현재로구포(龜浦)압 락동강의 수위(水位)는삼미돌오십륙(약열한자일곱치)을 보엿다

警官、水防團員 一日夜待機命令

【大邱支局電話】 이번호우로말미아마 그피해가 심한경상북도경찰부(慶北警察部)에서는 일일밤관내인 락동강의 증수를경계하기위하야 그부근 각경찰서에 대하야 경관과수방단원(水防團員)들의 대긔를명령하엿다

蔚山飛行場도浸水

【蔚山電話同盟】 삼십일일밤부터나리는비로말미암아 울산비행장(蔚山飛行場)도 침수되여 사용못하게되엿다

被害地雨量은 進永이最多
只今도繼續降雨中

【釜山支局特電】 삼십일일 오후 여덟시로부터 일일 오전 열시까지에 나린 경남도내각지의 우량은 진영(進永)의 이백십오미리를 필두로 제일 적은곳도일백삼십칠미리나되다

▲雨量＝▲釜山一四六(미리) ▲馬山一九〇(미리) ▲晉州一三七(미리) ▲密陽一七二(미리) ▲三浪津一九九(미리) ▲蔚山一五五(미리) ▲東萊一六八(미리) ▲鎭海二一一(미리) ▲統營一九六(미리) ▲進永二一五 ▲巨濟一四六(미리) ▲泗川一四五(미리) ▲三千浦一八二(미리) ▲南海一三六(미리) ▲彦陽一七六(미리)

雄基一帶에도豪雨
約二百戶가浸水
處處에自動車隊多數不通
漁船二百隻도碇泊

【雄基支局電話】 웅기일대에는삼십일밤부터 비가내리기 시작하더니 삼십일일밤부터는 물퍼붓듯이 쏘다저서 팔월일일아침까지 약삼백미리가량이나 와서하송현(下松峴)중송현(中松峴)일대에는 약이백여호나 침수되엿스며 청진(淸津)웅기간의 도로는 곳곳에 파손되엿슬뿐더러 전연통치못한다 만주로가는 철도선로도 군데군데 선로지반이 문허젓스나 속력을느추어 통행은 겨우계속하고잇다 그리고 항내에는 호우로 고기잡이를 나가지못하고 어선 약삼백여척이 돌켜잇서혼잡을 일우고잇다 비는아침부터 개이여 지금은오지안는다

吉州에도豪雨
柳滿川이汎濫

함북길주군영북면영기동(吉州郡英北面營基洞)을 돌려흐르는 류만천(柳滿川)지류가 범람하엿스므로 말미아마 그냇가에 잇는 가옥 삼십호는 마루밋까지 물이드럿다

各地雨量(一日午後六時現在)

【一日午後六時仁川觀測所發表】 고기압은 소립원도(小笠原島)부근해와 만주오호츠크해근처에 퍼저잇고 저긔압은 일본해로부터 조선에 걸처잇스며 양자강(揚子江)하류에와 일본해 북부에는 저긔압이잇서서 서조선 방면에는 곳곳에, 뢰성과함께 취우가 내리고 북조선과 중부조선이남에는 곳곳에 호우가 내리여, 래일에도 비는 개이지안흘것 갓다한다 그리고 일일오전 여섯시로부터 오후여섯시까지의 전조선각지우량은 다음과갓다

▲仁川八미리 ▲京城七 ▲江陵八 ▲大邱一五 ▲釜山二一 ▲全州一九 ▲濟州島三 ▲雄

聖戰의날은밝어섯다
히總統歷史的宣言
午前零時(朝鮮時間)에開會式

【伯林一日發同盟特派員】 一九四〇年第十二回國際올림픽大會를 東京에서 開催하기로 決定을보게 된 國際올림픽委員總會를終了하고 八月一日은 世界靑年을 祝福하는듯이 殷殷하울리는 待望의 第十一回國際올림픽大會開會式當日이다 待望의올림픽아聖戰의날은왓다 이記念하여야할第十一回大會의幕은 드듸여 一日午後四時(朝鮮時間二日午前零時)伯林 東北郊外에 新設된 大競技場에서 히틀러總統의 開會宣言으로 열렷다 全世界五十二個國 靑年男女四千名은 祖國의 名譽를 걸머지고 水陸으로 그精魂을 傾注하야 勝利에로 奮進을 繼續하야 全世界의 神經은 이伯林市의 一角으로 集中되는것이다 市內外의 모든宿舍家屋은 獨逸全領土 世界各國으로부터 雲集한 大會觀戰者로서 沿滿하고 잇는데 그들의얼굴은 모다興奮과 歡喜에 넘치고잇다 올림픽村은 前日到着한 英國의最終部隊도 모다 收容하야 出場五十二個國選手는完全히整頓되엿다 新裝한大『스타디움』은五輪旗와 獨逸國旗로 덥펴젓다 『운털린덴』거리는 世界올림픽大會開會를 祝福하는듯伯林의밤은 刻刻으로 밝아간다

마라손捷飽選手失望

【伯林廿八日發電】 마라손實地코―스練習은 지난廿四日로서 마치고 其後에는올림픽村안에서 가벼운練習을 하고잇섯는데 金、코―키레스는靴走에잇서서 足을傷하야 드듸여마라손出場은失望狀態이다 一萬米出場選手의 鈴木選手는 임이『엔트리』에 [illegible] 鹽飽選手의 出場은 別다른衝突이업다 그러고鹽飽

朝鮮軟式庭球代表出發
昨夜、伊勢에

來八月四日부터 三重縣宇治山田市에서 열리는 第二回伊勢神宮全日本軟式庭球大會에 出場하는 朝鮮代表役員選手六十九名(其中女子部는先發)은 昨一日午後十時五分發 京城驛發列車로 出征하엿는데 驛頭에는 必勝을 祝福하는 關係者들의 餞送이잇섯다 一行의 庭球聯盟副會長者 李承勳(中等男女)野副研介(專門學生)和泉隆(一般男子)三代表는 一日午前에 出征人事次로 本社를訪問하엿다

芬蘭一九四四年 올림픽大會를招致

【伯林三十一日發同盟】 芬蘭은委員總會의 投票結果로 日本에게 讓步하엿스나 奮戰끄테 惜敗한셈이다 芬蘭招致委員은 直時八年後인 一九四四年의 第十三回올림픽大會를 다시招致하겟다하야 三十一日에、國際올림픽委員會에 對하야『헬싱키』市長『후렌갈』氏의 名義로 其旨의 通告를 發送하엿다

藝術競技內容發表

【伯林三十一日發同盟】 올림픽藝術競技의 內容은 卅一日에 決定發表하엿는데 藤田隆治氏의日本畫『아이스·하키』及鈴木朱雀氏의 日本畫『古典的競馬』는 모다 第三位로 入選되엿다 日本畫의 評判은 자못조와 獨逸의『루스트』文部와『호릿크』內務兩大臣은 日本畫를 벌서十五點이나 買收하엿다

冬期競技放棄에 北海道島民失望

【札幌電話同盟】 嘉納、副島兩委員이 四圍情勢에말미아마 冬季競技放棄를決意하엿다는 報道는年來全力을 集注하야 札幌의 世界的紹介에 專念하고잇든 北海道民을 全혀失望케하고잇다 이에關하야 札幌스키聯盟會長 大野博士는 말하되 『嘉納、副島兩委員이 冬期競技를 斷念한것은 意外라고말할수밧게업다 우리들은 過去數年間의努力結果로 올림픽冬期競技札幌招致는 確定的으로밋고 크게깃버하엿다 그런데이와가튼 悲報에接한 一般島民의失望은 比할데업다』

부라질代表不出場?

【伯林一日發同盟特派員】 『부라질』올림픽팀은 이미 伯林에到着하여잇는데 大會를 一日압두고 三十一日 그本國政府와 말성이생겨서 이結果 或은選手들이大會에出場지안홀는지도몰라 그推移는 各方面으로부터注目되여잇다

藝術올림픽終幕

【伯林三十一日發同盟】 지난十五日부터 公開되든藝術올림픽은 三十一日正午 伯林西郊市展覽會場에서 各國올림픽委員、獨逸政府代表列席下에 盛大한閉會式을 擧行하엿다

都市對抗野球

東京9A 新京6

【東京電話同盟】 都市對抗野球第一日의 新京對東京倶樂部戰은 一日午後一時五分부터 神宮球場에서 新京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九A對六으로東京倶樂部快勝

新京 000400011 6
東京 002300004A 9A
(9A…6)

仙臺9A 橫濱6

一日仙臺(仙鐵)對橫濱(橫濱倶)의 試合은 一日午後三時四十五分부터 三谷(球)齋藤、藤田(壘)三氏審判 橫濱先攻으로 開始한바 結局九A對六으로 仙鐵勝 閉戰五時二十九分

◇投捕＝(仙臺) 鈴木—村田 (橫濱) 宮崎—小野

(橫濱 002001300 6
仙臺 001060002A 9A)
9A—6

仁川武道館昇段者

【仁川】 仁川武道館에서는 去二十八日昇級試合을擧行한結果 當日昇級된館員은如左하며 昇級證書授與式은 三十一日에擧行하엿다 한다

一段 吳成圭 金在瀅 一段候補 李得雲 柳永浩 金永秀 李任玉 李泰先 一級 文元瑞 宋公三 韓昌熙 金仁顯 金道允 二級 金石根 申東旭 姜乙龍 崔五十五名

叢湖蹴球의第一日盛況

本報永登浦支局後援

【永登浦】 우천으로인하야 부득이연기되엿든 본보영등포지국(本報永登浦支局)후원의 제삼회총호축구대회(第三回叢湖蹴球大會)는 엄격한심판하에 경기를 시작하엿는데 모다십구팀의 참가단체는 부슬부슬나리는 구개비를 무릅쓰고 정각전부터 가릉가리

▲[illegible]一七 ▲[illegible]一七

今日의運動

▲陸上＝第十三回全朝鮮中等學校陸上選手權大會第二日 午後一時 京城運動場
▲水上＝全朝鮮中等學校水上選手權大會第二日 午後一時 京城府營풀

京城版

市內電燈數 五十八萬餘個

경성전기회사(京電)에서 공급하고잇는 전등개수는 륙월말현재로 도합 오십팔만사천사백이십개로 전긔말(前期末)에 비하면 호수에잇서 이천륙백일흔아홉호와 개수에 잇서 이만륙천팔백여개가 증가를 보이고잇다 그리고 전력수용하는 집은 일천구백세호에 계약"와트"수는 이만륙천칠백팔십일"키로와트"로 이역 전긔말에 비하면 호수에잇서 백일흔아홉과 "와트"수에잇서 이천륙백"키로 와트"의 엄청난 증가이다。

不順한 氣候따라 赤痢恐怖時代出現
一月부터 七月까지 市內서 二百五十名
前年同期보다 八十四名增

긔장마를 마지한경성시내의 적리환자는 근일에 이르러 갑작히 격증하야 방역진(防疫陣)을 당황하게 벌리고 적리공포시내를 현출한 느낌을주고잇다

이제 금년정월부터 이달이십구일까지의 부내의 적리환자 수를보면 이백오십칠명이고 그중소선이환자는 팔십일명이라는 수자를보이고잇다

이것을 전년에 비하면 작년 발생수는보다 일백칠십사명으로 팔십사명이 금년에드러 증가된 모양이다 이것을다시 월별로보면 륙월까지는전년보다 적으나칠월에드러서자 깜작히 부러서전년 륙십칠명에 금년은 일백구십일명이라는상배가 넘는수자를 보이고잇는데 이것은 역시칠월달의 긔후불순을 여실히 예증하고잇다 또조선인환자를 년령별로보면오세미만이십팔인으로 최다수를점령하고 십세미만이 여덟사람으로 십오세미만의환자는 모다서른두사람이라는 수자를 보이고잇다 이는 전환자의 약사할오부라는 분야를점령하야 소년유아시대의 적리병률이만흠을 말하고잇다

이에따라서 오십세이상의로인들도 여러사람의적리환자를내고잇다

東部出張所管內 廿二個町會創立
各町의役員總代等도選定
殘餘는不過二個町

지난 사월일일부터 새로편입된 부역(府域) 각정의 위생시설과 라모든 시설에잇서서 중대한역할을할정회(町會)에대하야 동부출장소에서는 그동안 준비원을선정하야 그설치에 로력중이든바 좌긔와가티 예정수 이십사개정회 에서 이십이개의 설치를 못내엿스며 남어지마장정(馬場町)은 신구 두부락으로 구성되여잇는 관계상신구부락에서서로 자긔부락사람을 총대(總代)로 하겟다는것으로 의견의 충돌이 심하야그일치를 보지못하엿슴으로 아직 정식으로정회의 설치를보지못하엿스나 이것도 불원에 성립되리라하니 이로써 동부출장소관내 이십사개정회는 완성을 보는세음이다

▲鷹峰町(七月五日總會) 總代 金奉善
▲杏堂町(七月八日) 總代 朴英根
▲徽慶町(七月九日)
▲祭基町(七月十日) 總代 朴暻乘 (以上旣報)
▲甲門町(七月十日) 總代 李壽鵬
總代 金彦模
▲下往十里町(七月十一日) 總代 李義善
▲玉水町(七月十一日) 總代 李熙成
▲龍頭町(七月十三日) 總代 林定根
▲新堂町(七月十五日) 總代 鄭敬洙
▲典農町(七月十六日) 總代 金龍模
▲淸凉里町(七月十六日) 總代 李哲和
▲回基町(七月十六日) 總代 安鍾俊
▲新設町(七月十八日) 總代 尹泰英
▲上往十里町(七月十八日) 總代 趙重璧
▲安岩町(七月十八日) 總代 柳海昌
▲新堂町一區(七月十九日) 總代 平田豊
▲新堂町二區(同日) 總代 水田梅平
▲新堂町三區(七月二十一日) 總代 岡戶廣治
▲新堂町四區(七月十九日) 總代 鈴木金太郎
▲沙斤町(七月二十日) 總代 鄭道舜
▲金湖町(七月二十一日) 總代 金永基
▲敦岩町(七月二十三日) 總代 孫云昌
▲路十里町은七月十七日町會만은 成立되엿스나 總代는未定
▲馬場町未成立

晩種과小作料
今年農形과多端할收穫期

【仁川】이중상중으로 밧는농촌의비에는 이제새삼스러히 말할것도업거니와 전년의수해로인하야 극도로궁에 빠저잇는농촌에 금년봄이래로 혹심한한발로인하야 일반농작물에대하야 전부말나죽게된 형편이든바 뜻밧게농장마로인하야 느젓스나마이앙은마첫스나 과연이것의결실이엇더한정도로될지가 우려된다 이보다도 더큰문제는 일반소작농(小作農)의 소작료문제가 가장큰형편이다 지주측으로부터는벌서부터도조(賭租)와 소작료등을 전대로 증수하랴는기세가 보임으로 경이일대의 각소작농들은 벌서불안을늣기고 잇슬뿐아니라 당국으로부터는 밤두하는수확기에 "어떠한처단과 중재를하야줄지주목되는바이라한다

電料減下問題로 開城府民代表等猛活動
西鮮電氣會社에陳情次로
實行委員出動豫定

【開城】긔보=전번 개성긔자구락부(開城記者俱樂部)주최로 부민대회를 개최하고 개성부의긴급히시설할 칠개조항의 제문제를토의한바 그후선출된 실행위원제씨는 오죽전기 목적을관철키위하야 만난을무릅쓰고 활동을거듭해서 그중첫재문제로 개성전기회사에 요구한 사회시설비를 거금삼만원 제공으로 쾌히승낙을 어더낸것은 임이보도한바이어니와 이에기세를 노핀동위원들은 지난칠월 이십팔일 남어지 오개조항을 가지고 경성으로 당국에 진정차 상경하얏다가 다시 도라와 오는삼일은 『개성전기』와 합동한 평양서선전기회사(西鮮電氣會社)를 상대로 전기료감하운동의 봉화를노피들고 칠명의 실행위원이 출발하리라는데 요구문은 좌기와갓다한다

要求事項

새로히 當府에 電氣供給을業으로하는 西鮮電氣合同株式會社에 對해서는 적어도 京城府內의電氣料金과 同等한 標準까지電氣料金을 引下하기로要求할것

總代虛職幻影에 町會亂立의惡弊
付岩、新營、弘智는合同할氣勢

벌서부터 합동 비합동문제와 총대쟁탈전으로 그조직을 보지못하고 이날까지 연하여나려오는 시내창의문밧 신영정(新營町)홍지정(弘智町)두동리와 이미정식상 조직을 보앗다고하는부암정(付岩町)등 세동리의 정회(町會)는 전여명주민들의 격렬한반대와아울려 부당국의 종용으로 마침내 세동리합동정회 조직의 긔운을 보이고잇다한다

이상세동리가 합동해서 단합될정회를 조직하지안흐면 안될 리유로는 첫재로 그들의생활정도가 일반적으로 야튼것을 째로는 납세액이 말할수 업시 저급한것들두가지이니 즉부암정은 소화팔년도현재로 국세(國稅) 지방세(地方稅) 읍면세(邑面稅) 학교비(學校費) 지세(地稅) 영업세(營業稅) 호세(戶稅) 차량세(車輛稅) 호별세(戶別稅) 지세부가세(地稅附加稅) 학교비 호세부가세(學校費戶稅附加稅)등을 합한일, 이그납세총액이 겨우일천백구십팔원십집전, 홍지정의 그것은 사백사원팔십일전, 그리고 신영정의그것은 사백팔십일원구십팔전으로 이것을 모다합친다할지라도 총액이천팔십구원 팔십구전이라는 구구역부정(區區役府町)의 한사람 납세액의 열의한가닥도 못되는 미미한 부담역을 가지고잇기 때문이라한다

다음 그들의 생활정도를보면 대부분이 근로계급 즉 날품파리와 행상인들이어서 한달에 최고 칠팔원의 수입잇는 사람이 두서너명씩에 지나지못하고 그밧겐 평균이삼원안팍되는근소한수입들로 그날그날의생활을 지탕해나려오는만치 대부분의주민들은 소득세(所得稅) 대상이 못되는터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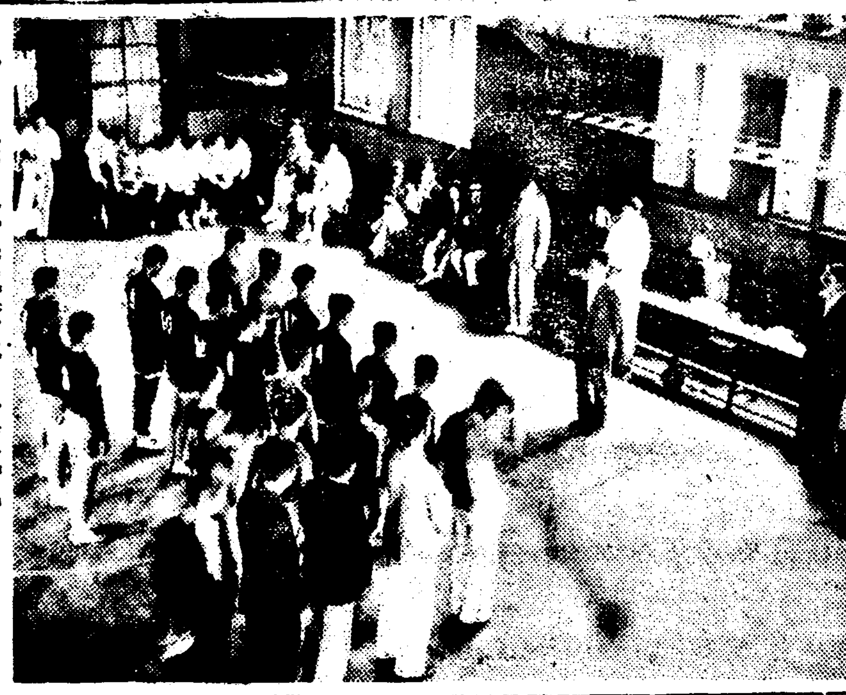
이상과가티 생활력의 빈약과납세액의 저급등 그어느점으로보든지 세동리가 따로따로나혹은 부암정따로에홍지정、신영정따로를 조직하는것은 일부총대라는 허영심에 도취된 사람들의 작난에 지나지못할수 업서도 조흔재비(?)를 흐터 버리려는 몰상식한 소치라하야 이합동을부르짓내 주장하는것은 부암정민들로 점점그정회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노파감에 비추어 그갑부들도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고 집해왓으나 지금에이르러는 태도를고치여 세정회의 합동하는것이 어느점으로보나 리익되다는것을 깨닷게되여 신영 홍지두동리와 합동교섭을 하기로되엿다한다

延期햇든蹴球大會 一日正午에開幕
本報永登浦支局後援

【永登浦】루보=지난칠월이십오일부터 삼일간 영등포방학정주택지(永登浦放鶴亭住宅地)에서 개최하려다가 우천으로인하야 부득이 중지되엿든 영등포체육회(永登浦體育會)주최와 조선일보영등포지국후원의 제삼회긔호축구대회(第三回畿湖蹴球大會)는 장마도거치고 운동장도 적당하게구터젓스므로 금일일정오부터 경과롭시작하게되엿다는데 오래동안 가물과 장마에 시달이엿든 삼백여명선수들의 욕란전이 야말로수효를 헤아릴수업시 모여드는만흔 관중으로하여금 손바닥에땀을 흘리게하리라 크게기대하며 공전의성황을예측한다고한다

日曜講話

◇齋松敎會 午前十一時 全弼淳氏
犧牲의價値
午後八時 非協同罪 洪秉德氏
◇中央敎會 午前十一時 梁澗煥氏
未定
午後八時半 新禱의精神
◇朝鮮監理敎阿峴敎會 午前十一時 田四勳氏
『生死之一判』
午後八時三〇分 『靑年時期의맛는試驗』 黃永洙氏
◇龍山敎會 午前十一時 李鍾相氏
曉雨의喜悅
午後八時 基督敎와靑年 康鎭義氏
◇覺皇寺 午前十一時 李夏永氏
財施와法施
◇石橋敎會 午前十一時 朴聖權氏
人生의目的
午後八時 金仁泳氏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金鍾浩氏
生命의神
午後八時 儀式의貴重性 金五峰氏
◇尙洞敎會 午前十一時 鄭得成氏
未定
信者의理想 崔相鉉氏
午後八時 第二創造 金鍾浩氏



◇…崇商 徽文 籠球戰 入場式光景

지난 사월일일부터 새로편입된 ... (東部出張所 記事 續)

驚嘆할崇商軍의偉力
徽文、스兩軍粉碎
崇商京城發北朝鮮에

우리籠球界의至寶 崇仁商業籠球軍을마지하야열리는歡迎戰은 昨一日 午後四時부터 鐘路中央基督敎靑年會코-트에서 열리엇다 定刻에本社運動部記者 高鳳梧氏의司會로入場式이열리어 後援側인基督敎靑年會體育部主任張權氏의 歡迎辭가잇슨다음 徽文高普對崇仁商業戰으로부터開幕되엿바 崇商軍洗練된速攻으로徽文과스팔타兩軍의堅陣은餘地업시 蹂躪하야 滿場觀衆으로하여금 驚嘆케하여 常勝軍의貫錄을보이엇다 崇商은 今二日午前八時二十分發列車로 第二次遠征地元山으로向한다

崇商60 (35 25 : 8 2) 10徽文

【第一次戰】徽文高普對 崇仁商業戰은 同午後四時 十四分부터 金振秀、宋基字兩氏審判아래 開始된바 結局 崇商와 원사이드게임을 演하드니 六十對十의큰差異로 崇商快勝하엿다(게임三十分間)

反後前	【徽文】		【崇商】	前後反
040	姜日東	F	朴榮大	800
242	尹桓燮	F	李明燦	040
		F	李龍國	1280
100	黃奎鳳	C	趙得俊	800
		C	邊勝萍	011
300	申鳳浩	G	石道順	780
000	李明天	G	安昌健	040
682				35251

全崇商50 (19 31 : 15 11) 26스팔타

【第二次戰】全崇商對 스팔타俱樂部戰은 同午後五時三十分부터 李惠澤、林東洙兩氏審判아래 開始한바 結局 五十對二十六으로 全崇商勝捷하엿다(게임三十分間)

反後前	(全崇商)		(스팔타)	前後反
207	崔成鐵	F	金壽龍	220
010	李明燦	F	南龍命	000
1812	朴榮大	F	朴東漢	300
		F	申光浩	042
174	趙得俊	C	崔海龍	421
312	金聖鎬	G	李文鎬	002
000	石道順	G		
304	金禎瀚	G		
022	安昌健	G	辛在鼎	252
10 19 31				11 15 7

培材의金裕澤君 百米、十秒八新記錄
養正軍은依然强하다
中等陸上第一日

第二回全朝鮮中等學校陸上競技選手權大會의 第一日은 一日午後一時三八分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한바 昨報以後의 戰績은다음과가트며 投砲丸決勝에는 養正高普의 張聖壽君이 十三米十四란 朝鮮學生新記錄을 作成하야 크게氣焰을 吐하엿다 百米에는 培材高普의 金裕澤君은朝鮮人으로서 京城運動場에서는일즉이 지은일이업는 十秒八의大記錄을 作成하엿다 그리고 第一日의 總得點으로는 三十九點으로 勝者 養正高普軍이 昨年의優勝者로 斷然優勢를 보이고 잇스며 次位를 一高軍이 占하고잇다

【低障碍豫選】▲A組 1鈴木(群中)一九秒四 ▲B組1宋承業(平高)二〇秒四 2李常榮(崇德)二〇秒五 ▲C組1李周基(平高)二〇秒四 ▲D組1上水(京師)二九秒 ▲E組1李東華(平高)二八秒 ▲F組1蘇鎭南(一高)二十九 ▲G組1渡邊(道商)三〇秒六 ▲H組1崔禹榮(海高)三七秒五 2高禹淳(京師) ▲I組1大井(龍中)2金裕澤(培材)三七秒七

【四百米豫選】▲A組 1羅絅成(光成高)三一秒 1張終秀(養農)五五秒八 2李熙福(京師)五六秒二 ▲B組1李景羲(養正)五三秒七 2許學洙(崇德)五七秒五 ▲C組1李東華(平高)五五秒六 2李愚永(養正)五八秒 ▲D組1李一龍(培材)五六秒七 2崔貞煥(海高)五七秒二 ▲E組1鮮于鏞(平高)五五秒二 2金麟河(培材)五六秒 ▲F組1李常榮(崇德)

【四百米障碍豫選】▲A組 1養正目四五秒七 2平高目四六秒四 ▲B組 1海高目四六秒二 2崇德目四六秒四 ▲C組 1培材目四六秒三 2京師目

【千五百米決勝】1尹光鎬(平農)四分二二秒六 2金鍾植(養正)四分二三秒四 3李鍾燮(培材)四分二九秒 4朴伍燮(崇德) 5諸明 6金赫鎭(一高)

【百米準決勝】▲A組 1宋壽鳳(崇德)一一秒四 2崔相弼(仁商)一一秒五 ▲B組 1金裕澤(培材)一一秒四 2內田(龍中)一一秒六 ▲C組1金克煥(養正)一一秒三 2文顯杆(平農)一一秒四

【百米決勝】1金裕澤(培材)十秒八(大會新記錄) 2宋壽鳳(崇德)一一秒一(大會新記錄) 3金克煥(養正)一一秒三 4崔相弼(仁商) 5內田(龍中) 6文顯杆(平農)

【四百米準決勝】▲A組1李景羲(養正)五四秒 2許學洙(崇德)五四秒三 3李熙福(京師) ▲B組1鮮于鏞(平高)五五秒二 2李常榮(崇德)五六秒三 3李一龍(培材)

【千六百米繼走】▲A組1平高三分五一秒四 2養正 3道商 ▲B組1崇德 2龍中 3培材

【投圓盤決勝】1張聖壽(養正)三五米八〇(大會新記錄) 2白承旭(養正)三二米四七 3金鍾權(一高)二八米九四 4姜正善(徽文)二八米七五 5馬鍾國(養正)二八米六四 6鄭勞讓(培材)二八米二〇

【棒高跳決勝】1蘇鎭南(一高)三米五〇(大會新記錄) 2秋田(光中)三米一〇 3阪谷(仁商)二米九〇 4朴勳緖(仁商)二米八〇 5朴允熙(平高)二米七〇

【低障碍決勝】1羅絅成(光成)二七秒四 2北野(京工)二七秒五 3李常榮(崇德)二七秒九 4蘇鎭南(一高) 5鈴木(群中) 6崔禹榮(海高)

【走幅跳決勝】1金源權(海高)六米五六 2馬鍾國(養正)六米四三 3裵瓊煥(崇德)六米二三 4崔相弼(仁商)六米一二 5文顯杆(平農)六米〇二 6韓仲鎬(養正)五米九七

◇…第一日各校得點順位
▲養正三九點▲一高十八點▲崇德十六點▲培材十三點▲仁商十三點▲平高十一點▲平農七點▲海高七點▲光高六點▲二高五點▲光中五點▲京工五點▲養農三點▲徽文三點▲龍中二點▲群中二點▲京師一點▲釜中一點

運動界人事

▲普專 齒專 法專庭球代表(伊勢遠征)一行은 遠征人事次本社來訪

一千萬女性의面鏡·家庭과街頭의女性에게보내는炎天의鎖夏帖

女性 八月號

萬里異域에게신님
玄濟明氏婦人 柳亨基氏夫人 李寅善氏婦人 金善琪氏夫人 의戀慕記

自然과女性心境
女流文人諸氏가이여름에自然에서바든心境을吐露한玉筆의告白

이한여름을어느곳에서보내시렵니까
사나히는아모곳에나갈수잇지만녀자가이여름을어듸가서보내나女流名士들의樂士의公開

美人과裸体美
여름이되니女子의裸體美를이야기하게됨이우수운일이아니다美人은얼골만어엽버도안된다 一文을보면美人될수잇는것을發見

海水의魅力「水泳」
바다여 여름은 사람을부른다 람에따라 바다가조흔이가잇고 그러나사 남분이가 잇다 여기에모두 들 注意해야 만된다… 申允惠

小說과이야기
柘榴 李孝石
瀕死의白鳥 咸大勳
푸른눈 李源朝
그리운안해 自旻
콩트選集 諸氏

두人生
實話 生을咀呪하는S孃
명랑하게사러봅시다……朴奉愛

女流文人自働車橫走
毛允淑·李善熙·張德祚諸氏가自動車를타고處女도로心境까지橫走하는珍記事
여름성적化粧의秘密은 文壇諸氏

表紙와扉畫 安夕影畫

一席 活
미더운世界出現 李殷相
결혼한누이에게 鄭權陽
女性消息 世界女性消息 其他興味記事 實益滿載

畫報 첫아기나혼이의자장가
八月은水神의愛人
美와힘
이처지지안는情景……盧天命
바다의情熱 白鐵
農村……金午易
樂界女流音樂家群像 金管

定價 一部 十錢 送料 一錢
發賣中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發行所 朝鮮日報社出版部 振替京城八七五

產業

棉花의摘心은 收量에關係至大

때는正히摘心期를當하얏스니 이러한注意로서摘心할것이다

棉의 栽培에잇서서 管理中의 重要한 項目의 하나인 棉의 摘心은 收穫量에 重大한 影響이 잇는것으로 棉의 摘心을 適當한時期에 適當한 方法으로 行한 것과 안한것과는 그收量에잇서 天壤의 差가 잇다。

그런데 棉의 摘心은 七月下旬에 始作하야 八月上旬이 最盛期인데 이제 陸地棉과 在來棉의 摘心에 對하야 그方法을 簡記하면 大體다음과갓다。

▲陸地棉 陸地棉은 在來棉에 比하야 摘心을 嚴密히 行하지안흐면 莫大한 損害가잇스므로 特히 注意를 要한다。前記한바와가티 그摘心의 時期는 七月下旬 乃至 八月上旬이 最適期이라하나 이것은 普通的期間이고 棉自體의 發育條件에 相符하는 具體的表現은 아니다 即 陸地棉의 摘心適期는 第一花開發後 第二花가 開發하엿슬때에 곳行하는데 이것은 棉叢全體에 對하야 一時에 行하는것을 避하고 棉叢의 發育狀態에 따라서 適當한 時期 即 第二花가 開發하엿슬때에 行할것이며 摘心의 程度는 棉本幹의 上端의 嫩芽를 조금摘取하야 그成長을 阻止하는 程度에 끄치는것이適當하다 萬若 이때에 摘心을지나치게 만히하면 徒長枝와 腋芽가 叢生하야 그結果를 害함으로 되도록 小部分을 摘取할것이다 特히 陸地棉은 在來棉보다 徒長枝나 腋芽가 만히發生함으로 注意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리고 摘心을 行한後 幾日을 經過하면 徒長枝 又는腋芽가 發生함으로 이것은 發生하는때마다 無時로 除去하여야된다

그리고 摘心은 一般的으로 棉의發育勢力이 强한것은 前記方이라한다

▲在來棉 在來棉도 前記 陸地棉과 거의 方法을 同一하게하는데 다만 그摘心의 時期를 開花前의 八個에 ... 行하는것이 가장 適當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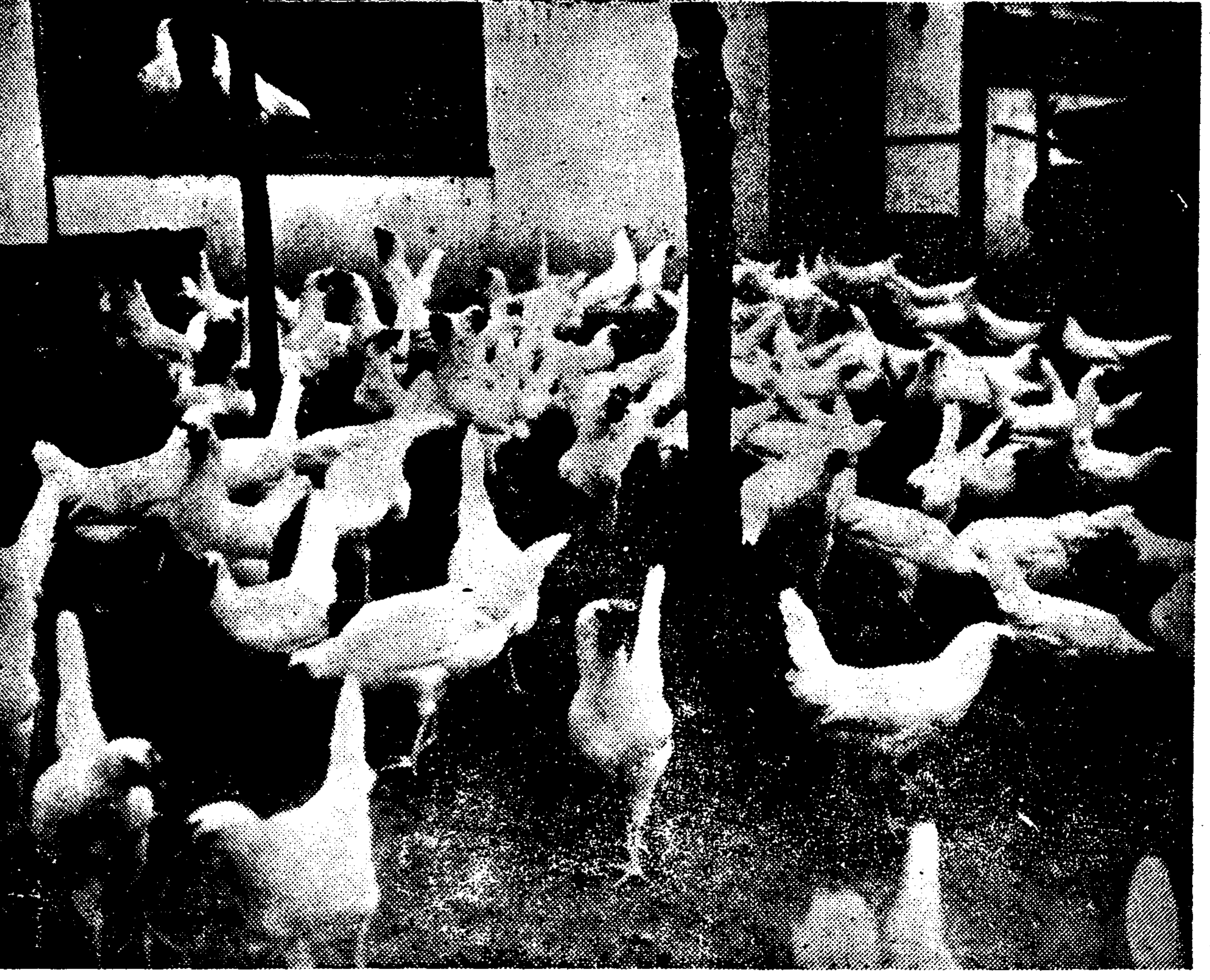
그런데 在來棉은 陸地棉에 比하야 徒長枝나 腋芽가 적게發生함으로 陸地棉과가티 嚴密히 注意를要하는 것이조타

當面한農事

京畿道에서 指導

各郡에指導班을派遣

京畿道에서는目下 農業의 重要한 堆肥造成、桑園管理、特히 棉花의 摘心을 指導督勵하기爲하야 農務課長을 指揮者로 各主任技師를 班長으로 五班에 分하야 八月一日부터 二週間에 亘하야 道內 高陽、坡州、長湍、開豐、楊平、驪州、利川、廣州、加平、楊州、抱川、漣川、水原、龍仁、安城、振威、始興、富川、金浦、江華 各郡에 出張 指導中이라하며 또道에서 各郡에 對하야 今後 一個月間에 各郡內의 堆肥造成、桑園管理 棉의摘心을 指導하도록 通牒하엿다고 한다



▲무럭 무럭 자라는 닭

電力國營案은 朝鮮엔無關

當局者는不必要主張

旣報한바와가티 現內閣의重要國策의하나로 目下 內閣調査局及 遞信省에서 硏究中의 電力國營問題에 對하야 目下 日本內地에잇서서는 業者와 政府間의 意見이對立되어 그이害비를 아지못하는터이며 이問題는 現下社會問題로 重大注目을 띄는만큼 一般의 注目을 끄는터인데 이問題에 對하야 朝鮮의立場에서 總督府遞信當局者는 다음과 가티 말한다

日本內地에잇서서의 電力國營問題는 電氣事業의 整理方策이라고도 말할수잇는것으로그 實現與否는 알수업스나 全然 不可能한일은 아닌듯하다 그런데 이에對하야 朝鮮의電氣事業은 日本內地의 그것과는 全然別個의 分野에잇스며 또 朝鮮은 日本內地보다 事情이 달라서 日本內地는 最高發展期에 達하여잇슴에 反하야 朝鮮은 發展途程에잇스며 또前者는 發展過程에잇서서 統制가 不充分하야 未整頓狀態에 잇슴에 反하야 朝鮮은 統制가 整然함으로 國營의 必要를 늣기지안흘뿐만아니라 政府로부터도 朝鮮에對하야는 아무 指示가업다 要컨대 朝鮮은 電氣事業統[illegible]

利川郡金肥需要 十九萬六千餘圓

【利川】近年 金肥의 需要는 當局의 自給肥料의 增產計畫實施에 不拘하고 年年 激增의 傾向에잇서서 그는 農家資金의 大部分을 占하고잇는바 今年과가티 麥의 冬旱害와 稻의 移秧遲延으로 自然的으로 金肥需要의 結果를 生하얏는데 今年一月以來 利川郡農會及 郡內三個所의 金融組合에서 斡旋한 金肥共同購入額은 硫安을 筆頭로 配合肥過燐酸石灰 其他 總計 四萬二千九百餘叺價額 十九萬六千餘圓이라한다

江西郡春蠶狀況

【江西】江西郡의 今年度春蠶 및 共同販賣를보면 左記와如하다

掃立枚數 一、一二四枚
收繭量 六、四〇〇貫
賣出數量 九五四貫四〇匁
代金 三、一七二圓三九錢
[illegible] 四斗二升六合
代金 一〇圓六八錢
計 三、一八三圓七錢

右를前年에 比하야 百三十三枚가 減少되엿는바 그것은 昨年來의 蠶價로 桑木發芽가 不充分하엿고 그러나 蠶繭價는 良好한 成績을 보이엿다한다

토마토·써ー전 農省統制案

朝鮮側은賛同에難色

토마토·써ー전의 日本內地와 朝鮮統制는 日本內地側의 不統一 때문에 輸出組合에서는 解決을 農林省에 一任하야 農林省에서는 統制工作을 進行中인데 農林省에서는 다음과가튼 解決案을 가지고 朝鮮側의 賛同을 求하야왓다

一、初年度統制는 日本內地百四十萬 朝鮮三十二萬二千 卽八十一對十九의比例 (朝鮮側承認濟)
一、統制量 今後三個年으로함
一、十二年以降 增產의 境遇는 朝鮮의 新業의 將來性에 鑑하야 日本內地 七十七對朝鮮二十三을 基準으로하고 朝鮮에 優先的增產權을 與함

等이 主要한 內容인데 日本內地側의 提案은 朝鮮의 將來性을 認하는 點도잇스나 增產의 必要가업는 境遇는 朝鮮을現狀維持에 끄치게할것으로 朝鮮側으로서는 贊同할수업다하야

一、協定決裂에依한 朝鮮側의自己統制輸出
一、日本內地側의 要望도잇슴으로 再考協議의 境遇의 朝鮮側의 態度

의 二項에對하야 協議하야 統制잇는 方針으로서 對英輸出에臨할 意向이라한다

朝鮮產電球의 對英輸出協議

朝鮮產 電球의 對英輸出配當의 日本內地와 朝鮮協定決裂에 伴하야 朝鮮의 輸出方法에 對하야 協議코저 朝鮮電球輸出組合의 組合長、副組合長은 二日朝入京 殖產局長、商工課長과 會見하고 朝鮮電球[illegible]

赤松面一圓에 櫟橡을植栽

四年間一切採伐禁止

【江西】江西郡에서는 今年度에 赤松面一圓에 面積三千六百六十二町餘의 區域에다가 櫟木과橡木 其他를 植木케하는 同時에 따라서 一切伐採를 四個年間禁止하게하고 一般面民에게는 愛林思想을涵養키爲하야 赤松面은勿論 其他面에까지 道職員의應援을바다가지고 總數百餘回의講習會를開催하야 聽講者數千名에 達하얏다는바 압흐로 其成績이 如何히될는지 注目된다고한다

陝川莞草筵 年產七、八萬枚

日本內地에까지進出

【陝川】慶南陝川의 名產物中에는 莞草筵、紙物、麻布、濁酒等 紹介할것이 만타 이제 莞草筵을 紹介하면 다음과갓다。陝川의莞草筵은 全朝鮮的으로 보아서나 美麗한 품으로나 生產高로 보아서 이地方獨特한 產物의 하나이다。이것은 어느때부터 始作한것이지는 未詳하나 여름철의 돗자리로 有名하며 그種類와 等級은 여러가지가 잇다 이것은 家內工業으로 行하는것으로 年產高는 七、八萬枚 그價額이 五萬圓以上이라 한다 그러고 이것은 耐久力도 約五、六年以上은 持續하며 光澤이 統一되어잇스므로 日本內地市場에서도 大歡迎을 밧는데 陝川郡內의 生產戶數는 三百餘戶에 達하야 압흐로 매우 有望하다고한다

五山購買組定總

【古邑】定州郡葛山面舘城洞五山에잇는 五山購買組合은 四年前에 設立된바 그사히 幹部其他組合員의 健實한 活動으로 好績을示한바 同組合에서는 客月二十九日에 第八回定期總會를열고 決算報告가잇슨後 役員改選이잇섯다

上半期新昌港의 漁獲高十五萬圓

【新昌】躍進하는 咸南新昌港의 海產業界는 昭和七年度 新昌里漁港築港完成以來 沿岸一帶는大活況을 呈하고잇다함은 旣報한바이어니와 今年度에 들어서는 海流關係로 東海岸 漁業은 一大鰯威를 바더 年產平均 百五十萬圓乃至百萬圓의 產出을 보든 殷盛新昌港의 今年度 上半期中의 水產業은 昨年度同期의 生產高의 約半額이란 實로 놀라운減退數字를 나타내엇는바 各種類別로보면 如左하다

▲今年度上半期總漁獲高
=組合員分=

漁種別	數量		價額
鰮手繰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鰯 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鹽 散 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太刺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太延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鰈擧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鯛 延 繩	一駄	[illegible]	[illegible]
大 敷 網 (鯡魚)	一、〇六五駄		[illegible]
鰈 擧 網	[illegible]		[illegible]
鰆 流 網	一駄	[illegible]	[illegible]
雲丹覘突	一、一八〇貫		一、〇八一
鰈船曳網	三駄	[illegible]	[illegible]
鯖 延 繩	三駄	[illegible]	[illegible]

=非組合員分=

漁種別	數量		價額
鰮手繰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太刺網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太延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貝 桁 網	[illegible]		[illegible]
雲丹覘突	[illegible]		[illegible]
棒 流 網	二駄	[illegible]	[illegible]
鯖 延 繩	[illegible]		[illegible]
和目採取	[illegible]		[illegible]
鰆 流 網	[illegible]		[illegible]
駄 計			[illegible]
總 計			[illegible]
駄總計			[illegible]
兩分總額			[illegible]

淸道購買組合創立

【淸道】淸道驛前中心地帶에 事務所를두고 創立을準備中이던 淸道購買組合은 지난三十日 同事務所前庭에서 創立總會를 開催하고 組合의創立을마치엇다 한다

日本의電力問題 (下)

國營論의基調는?

以上은 主로 動力으로서의 電氣의 重要性인데 電氣에도 다시 化學原料인 重要한 用途가잇다 卽 電氣의 原料가 이것이다

電氣의 原料化는 電氣化學에 잇서서의 用途로 電解事業、電爐事業、電氣精鍊工業에 잇서서의 電氣의 應用을 總稱하는것이다

이것을 具體的으로말하면 硫安、石灰窒素等의 肥料製造、마강鐵、硅素鐵、모리부덴鐵等의 特殊鋼、알미늄、曹達의製造等에 極히만히 電氣를 必要로한다 이제 此等에對하야 若干의 例를들면

硫安은 一噸의製造에 三千키로와트時의 電力을 要하는 것으로 今日農村에서 不可缺의 重要肥料인 硫安의製造에 잇서서는 實로 原價의 三分之一은 電氣料金이 占하고잇다 또 近來 飛行機、炊事用具 其他 机椅子等 戰時에나 平時에나 極히 需要가만흔輕金屬알미늄은 一噸을 製造하는데 三萬키로와트時의 電氣를 必要로한다 三萬키로와트時의 電氣라하면 얼마만한電氣인가하면 十六燭光의 電燈五十萬燈을 一時間照明할수잇는電力量으로 이것은 世界第二의 大都市인 東京에서 一晝夜에 消費하는 電力量을가지고도 겨우 알미늄三十噸을 製造할수잇슴에不過하다 그러고 알미늄의 生產費의 五分之一은 實로電氣가 占하고잇슴으로보아 現代의 化學工業에잇서 電氣가 重要한 地位를占하고잇는가를 窺知할수잇다

最近 日本의 工業은 顯著히 發展하야 國防의 充實도 亦是期待된다고는하지만 아직까지 此等 化學工業品은 거의全部를 輸入에仰할수밧게 업섯다 現在는 國際收支의 改善과 國防獨立의見地에서 此等化學工業品의 輸入防遏의 方策을取하야 간신히 그目的을 達하고잇다고는하지만 그 永遠의 發展을 爲하야서는 그 根本原料인 電力의 豊富低廉한 供給에依하야 그것을 助長促進하지안흐면안된다 이것은 참으로 國策의 重要問題라하지안흘수업다 또 이것을 貿易政策의 見地로보아도 現在 日本의 輸出品은 綿布、紡織人絹等이 主要한것인데 나가서는 此等業界에 잇서서도 日本獨自의 分野에 關하야잇는 電氣化學製品과가튼 電氣를 多量必要로하는 商品의 輸出 卽 電氣의 海外輸出에까지 進展하지안흐면안되며 또 그러하여야 비로소 日本貿易의 前途를 期待할수잇슬것이다

다음 日本에서는 아직 그다지 普及을보지못하고잇스나 日常生活에 極히 密接한 關係를가지는 電熱應用이라는 重要部面에 잇다 電熱은 日本에서는 아직 一部家庭用、工業用으로 應用될뿐이나 이것을 在來의 木炭瓦斯等에 比하면 衛生的인것 取扱이 簡單한것 火災의 憂慮가 업는것等 幾多의 長處가잇다 다만 現在에 잇서서는 그料金이 高價한것이 唯一의 缺點이다 이點으로보아도 國營에依하야 豊富低廉한 電力에 對한 期待가잇는터이다。또 近來 所謂多角形農業의 提唱과 相俟하야 農事電化라는 말이 提唱되고잇다 卽灌漑、排水、穀物調製

例컨대 脫殼、籾化、精米等에 電力을 應用하자는것인데 特히 日本과가티 農事作業이 平均히 發達치못한 實情에 잇서서는 電力應用에依하야 이 農業勞働의 調節을 圖한것은 極히 必要하리라 생각된다 이에는 現在와가티 營利企業의 電氣事業에 依存되어 잇스면 採算上 農村에 電力을 普及할 希望은 업다 모름즉이 電氣事業을 公益的見地에서 運行하야 農村에對한 非營利送電을 斷行하야 今日의 農業을 合理化하고 農產物의 生產費를 低下하지 안흐면 農村振興은 百年河淸을 기다리는 것과갓다

○

그런데 以上에서 말한것은 平時의 國民生活 及 產業發展上 電氣問題의 重要性을 一瞥한것인데 電力問題에잇서 一朝有事時의 國防上 地位이다 近代的戰爭觀의 樹立者크라우제윗츠는 「모든時代는 그의、戰爭의 形을 決定한다」라고 하얏는데 製鐵의 發明은 小銃에依한 步兵戰을 또世界大戰中은 軍工業電氣化學의 發達에 依하야 戰爭形式의 複雜化를 齎來하얏는바 大戰後의 戰爭形式은 人的及物的資源을 總動員하는 戰爭 卽所謂總動員戰爭國力戰에 까지發展하야 왓다

그러면 前述의 國民生活、產業經濟의 電力問題의 重要性은 그自體가 國防上의 地位라고 할수잇다 卽 一朝有事之時에는 生產이 活潑하여지는 軍需工業의 使命을 制하는 動力으로서 또 軍事上 絶對不可缺한 電氣化學工業의 原料로서 電力은 極히 重要한 使命을 띄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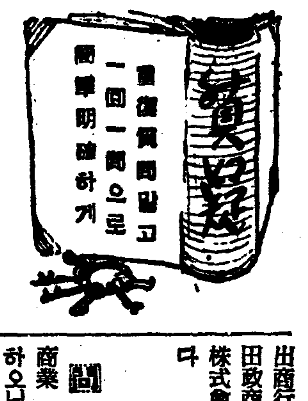
例하면 硫安은 火藥에 또알미늄은 飛行機에 各其 充用하는데 이와가티 有事之時에 잇서서 平常에 數倍되는 軍需品의 製造에 適應하도록平時產業의 轉換能力을 準備하야둘 必要가잇는것으로 이結果 必然的으로

各國이 廣義 國防綜合國防에 留意하고잇다 따라서 段階에 對하야서는 軍事工業、電氣化學工業等 電力의 需要는 크게 膨脹하는것으로 如何히 軍備를 擴大하야도 如何히 資材를 整備하야도 如何히 兵員을增加하야도 이에 順應할만한 軍需品을 生產할 수잇는 工業力、生產力이 相伴되지안흐면 戰爭目的貫徹上에 支障이잇다。

戰爭을 地上으로부터 驅逐하는것、永遠의 平和를 實現하는것은 希望할일이나 그것은 一個의 理想에不過하다。洋의 東西를 不問하고 時의 古今을 不問하고

人類의 本能으로서의 그것이 不可能한것은 歷史가 證明하는일이다 그때문에 國家는 그 生存上의 要求에 依하야 國防의 充實을 圖하지 안흘수업다 特히 現在와 가티 國際情勢가 緊迫하야 一觸即發의 形勢를 보이고잇슴에라 그리하야 日本現時의 政治經濟的設備는 戰時統制體制의 準備過程에잇다 하지안흘수업다 二十三億의 國家豫算中十二億까지가 軍備擴張의事實은 雄辯으로 이事實을 說明하기 때문에 日本의 經濟政策을 論하는者는 모름직이 戰時體制의 準備過程인것에 着眼하지 안흘수업다 電力問題의 檢討도 이點에서 하지안흐면안된다 그러면

或者는 말하되 國家가 危急存亡에 際하면 그때에 徹底的統制를 하는데는 異論가업스나 平時부터 그必要性을 할 必要는업다고 생각컨대 그가르는말은 不當한말로 平時부터 그根基를確立하야 두지안흐면 到底히 危急時에 圓滿을 圖하기가 困難하다 卽 平時의 國民生活向上 產業經濟發展을 爲하는 電力國策과 有事時의 國防充實때문에하는 電力國策과는 二位一體 卽 同一物의 表裏에 不過함으로 電氣事業의 形態에잇서서는 發電及送電의 組織을 全國的으로 單一한 有機體로하야 全國的範圍에서 有無相通하야 豊富하고 低廉한 電力을 必要한 때와 場所에 供給하도록하야 平時에 國民生活의安定과 產業開發의 促進에 供하는 同時에 一朝有事時의 產業政策이 國防充實에 適合케하는것이 電氣國策의 眼目이 아니면 안된다 그러하야 이에는 個個의 採算營利企業形態를 두면 안된다 大體 大所高所에 立脚한 國家的見地에서서 戰時의 準備와 平時의 操作을 完了하야 「公經濟的經營形態」인 電力國營을 斷行하지안흐면안될것이다(完)



問 木手用具、家具鐵物、家具塗料、額椽、硝子、椅子用鐵物의 都賣商을 下敎하시오 (咸興 一讀者)

答 木手用具及 家具鐵物은京城府本町二丁目 釘本金物店、塗料는 同黃金町二丁目 和田商會 同太平通二丁目 漢城ペイント商會 額椽은 同本町二丁目 日之出商行 硝子는 同本町二丁目三田政商店 椅子用鐵物은本町一丁目 株式會社橫山商店에서都賣도합니다

◇

問 小生이 商業을하고저하와 商業 銀行 簿記를 工夫하고저 하오니 參考書及 講義錄을 下敎하야주서옵소서 (寧邊洞K生)

答 東京市神田區小川町 森山書店發賣 門脇逸司著 『標準商店簿記(帳簿の附方、決算の仕方)』定價一圓五十錢、東京市神田區保町一丁目 同文館發賣 吉田良三著 『改訂增補 近世簿記精義』定價五圓二十錢 送料二十二錢

日用商品市況

一日 京城市內의 砂糖、麥粉及 穀物市況은 大體다음과가다

▲砂糖 小低

砂糖은 八月도 新盆需要期이나 近日의 暴雨로 需要가 減少되야 市勢는 小低를 示하는바 今日六十六斤(百斤)에 對한 市勢는

白砂糖 二一、九〇
青砂糖 二〇、九〇
黑砂糖 一一、五〇
分蜜糖 一七、七〇

인데 今後 天候가 回復되면 先高豫想이라한다

▲麥粉 昂騰

麥粉은 原料新麥의 出廻遲延으로 例年에 보기드믄 端境期의 高低를 示하야 今日은 二等二十二斤入一袋에 對하야 四圓六十錢의 高價를 示하얏스나 今月十日頃부터는 新麥의 出廻도 本格的으로될것으로 先低가 豫想된다고한다

▲粟 保合

西鮮方面은 粟作狀況良好하나 其他는 暴雨로 [illegible] 實需不振이나 滿洲方面은 時勢保合이나 北滿에 暴水로 入荷의 減少가 豫想됨으로 今日은 [illegible] 石에 四平街九、一〇 奉天九、〇〇이다 當地도 [illegible] 八、九〇이며 [illegible]

▲大豆 軟調

滿洲今年大豆作況의 豊作이 豫想됨으로 [illegible] 軟化되나 當地는 在庫豊富하고 年內 [illegible] 今日時勢는 每 [illegible]

▲大麥 保合

[illegible] 石에 龍山三等二一、七〇 [illegible] 二一、四〇 [illegible] 二一、〇〇이다

▲小麥 軟弱

外麥買付와 日本內地小麥 新麥의 出廻로 [illegible] 今日은 每石에 沙里院現物一九、六〇으로 [illegible] 九、二〇이다

▲白胡麻 保合

滿洲는 實物殆無로 上海는 [illegible] 未曾有의 入荷이잇스나 當地는 天候不良과 天津方面의多少 軟化로 時勢는 如前保合으로 每石에 南京一等一六、二〇 奉天一六、〇〇小黃麻는 閑散하다

鑛業權設定·移動

◇鑛業權設定

登錄番號 鑛種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三三八六 金銀鑛 江原[illegible] 七月十四日 京城府[illegible] 金[illegible]
一三三八七 マグネサイト 咸北吉州郡[illegible] 七月十四日 京城府[illegible] 代表者 吉州郡吉城面 [illegible]
一三三九一 金鑛 江原洪川郡乃村面 七月十六日 京城府[illegible] 代表者 [illegible]
一三三九二 金鑛 江原洪川郡乃村面 七月十六日 京城府[illegible] 代表者 洪川郡乃村面 崔春先

◇鑛業權移轉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鑛業權者住所氏名

一二七二五 平北昌城郡新倉面 大倉面東倉面 七月十日 京城府[illegible] 代表者 [illegible]
九八二八 江原平康郡高揷面 七月十一日 平康郡高揷面 姜鳳瑞
一〇六八七 咸北慶源郡安農面 七月十一日 慶興郡雄基邑 親和鑛業株式會社
一〇八四四 同慶源郡美浦面 同 同
一一九八一 同慶源郡安農面 同 同
一一六二五 同穩城郡美浦面穩城面 同 同
一二七八六 忠北永同郡楊江面龍化面 七月十三日 達城郡達西面 金[illegible]
一一八〇五 慶北永川郡臨皐面古鏡面 七月十三日 迎日郡興海面 崔基榮
九五四二 平北順川郡北倉面 七月十三日 東京市王子區[illegible] 岩瀨亮
一〇八五一 平北昌城郡東倉面 七月十三日 宣川郡宣川邑 代表者 [illegible]
一〇五〇〇 咸南長津郡北面 七月十三日 [illegible]
一二四〇〇 咸南長津郡上南面 七月十五日 長津郡新南面 代表者 [illegible]
一一五九八 忠北永同郡永同面楊江面 七月十四日 京城府南米倉町 崔祥灝
八三〇八 全北金堤郡金山面 七月十四日 京城府苑西町 洪棟基
八五七四 同 同 同 同
九一九五 平南順川郡舍人面 七月十四日 京城府壽松町 井上龜治郎
一〇五九一 江原洪川郡乃村面 七月十四日 京城府壽松町 朝鮮興行株式會社
一三三六五 江原三陟郡遠德面 七月十五日 福岡縣戶畑市戶畑 明治鑛業株式會社
一〇二七七 忠北淸州郡南一面南二面、文義面 七月十五日 永同郡上村面 郭在元
六六二八 黃海鳳山郡文井面 七月十五日 安東郡禮安面 代表者 李用右 張濟植
一三二〇七 江原洪川郡北方面 七月十五日 京城府永樂町 橋田駒治
九二三二 咸南安邊郡衛益面 七月十五日 安邊郡衛益面 金仁奎
一三三三一 咸南永興郡橫川面 高原郡水洞面 七月十六日 高城郡新北面 代表者 曾田太郎 安邊郡新茅面 金在擧 通川郡歙谷面 張振善 同 張益[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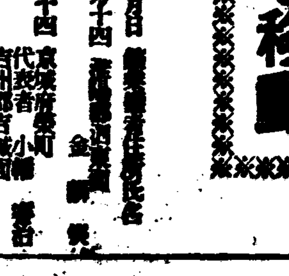
◇共同鑛業權者脫退

登錄番號 鑛區所在地 登錄月日 事項

一三〇七五 平南平原郡德山面 青山面 七月十三日 崔日德任意脫退

黃昏 (147)

韓雪野 作 安夕影 畫



再會 (六)

경재는 려순의신상에 대하야 여러가지로 의사를 바꾸다가

「네、네、공장으로요?……거긔갯습니다」

[illegible]

「그런데 저뿐아니라 여러분의 의견도 그러코、또 [illegible] 김선생의힘을 빌어야 하겟기에 의론해와 주십사 한겁니다」

「네、고맙습니다。」

하고 경재는 웃는 낫으로

「그런데 사실 나야 고맙게상의를 바드는 이저 어디 능해이잇서야지요」

「아니에요 선생님만 함께주시면 될일이에요……네 네 바로 그회사공장 말슴입니다。」

「네 잘 알아드겟습니다。말하 [illegible]

는거야 백번이늘 어려울거 잇습니까?……한데 내생각갓해서는 려순씨가 직접 말슴하는게 외려 나흘것갓습니다。이것은 책임을 회피해서 하는말이아니라 효과를 생각해서 말입니다」

「네 물론 저도 말은 해보겟서요。한데 선생님께서 먼저 공장주임과 말슴해보시고 그담에 사장과 한번 의견을 물은후에 그결과를 알아가지고 저도 가볼가 하는데요」

「하여간 지금은 사장이 독재(獨裁)를 하고잇스니까 결국은 사장 의견에 달린거겟지요……하니까 려순씨가 말슴하시는게 내말하는것보다 외려 낫지안흘가합니다。려순씨말은 늘 조케하고잇스니까요……그런데 한가지 념려되는것은 가령 채용한다고하면 다시 사장실에 두라고하지안흘가 하는겁니다。사실인즉 사장실에 잇는사람을뽑아간 공장으로 보내라는것은 좀 문제니까 그것을 꺼릴것 갓습니다。그런사람은――그런사람뿐아니라 현대사회의 소위지위잇다는사람은 우리와는 달러서 현식이라는데에 여간 구속되지안습니까요」

「그건 선생님이 말슴 하시기에 달린거지요。저와 저의정의서도 그런뿐아니라 다시 서무실에두는건 여러가지로 자미업겟다고 그랫듯이 리유를 부처서 말슴해주시시요 그런」

「참말 요전에 보니까 공장에 잇든 녀자라는데、가끔 사장실

경재가 주저의 말에 이러케 대답하고 잇는것을 려순이가 차다가

「그래 선생님 한데도……」

하고 방긋 웃다가 말을 돌려가지고、

「하지만 그것도 한기회에요 사장도 고이찬케 생각하는 눈치라니까 벗처 권해서 사장실에 두도록 하서요。그러면 저뒤러 사장실에 잇스라고 할수업지안켓서요?」

「말이그러치 공장에 잇든사람을 그러케 홀홀히 올려다 쓰겟습니까? 아무리 녀자에게는 관대한 사람이라하지만……!」

그때 주의이가

「거 안될겁니다」

하고 경념의 근래사정을 말할까하다가 그만두고 그저、

「공장주임이 모처럼 자기사무실에 데려간건데 옷사무실로보내랴겟습니까? 요새 새로 월급도 올려주고 또 새공장준비때문에 공장사무실도 매우 분망한 모양이든데요。김선생은 잘 아시겟지만……」

「아닙니다。전 좀 알지못합니다。사실상 저는 회사와 아무관계도 업습니다。공장혁신에대해서는 전에 한두번들엇을이 잇습니다만 근일 형편은 좀 알지못합니다」

「참말 공장혁신이되면 좀처럼 돌어갈수 업을건니다。하니까 될수잇는대로 속히 말슴해주서요」

려순은 문득 생각이나서 이러케 경재에게 졸라대엇다。